

치 사

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은 1970년 제1회 불교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공모전과 전시회를 거듭한 결과 반세기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오늘날의 위상이 있기 까지 본 미술대전을 통해서 불교미술 정신을 고취시키고 발전을 이끌어준 작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불교미술은 부처님의 사상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구현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도 하지만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합니다. 이는 예경의 대상이 자 감상의 대상으로 작가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이를 수 없는 정진의 결실입니다.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전하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도 합니다. 이렇듯 불교미술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 우침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성스러운 종교예술입니다.

이와 같이 불교미술은 1700년 한국불교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킨 산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미술은 옛것이라고 생각되어 새로운 문화에 밀려 그 가치가 퇴색되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. 그렇기에 불교 미술 작가들이 활발하게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과거의 격을 유지하고자 종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 오늘과 같은 기획전시를 통해 역대 수상자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.

이러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본 기획전에 다양한 작품을 출품받아 장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번 기획전에 작품을 흔쾌히 출품해주신 작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본 행사가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시는 모든 불교미술인들과 운영위원,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
불기2558(2014)년 11월 26일

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회장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

자 승